

#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시행... 광주·전남 신청 '0'

### 가맹점주들 계약 해지 무서워 본부 '눈치보기'

### 전편협 "본부 정확한 공지 안하면 실효성 없어"

심야영업 중단을 허용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후 첫 주말을 넘었지만, 영업중단을 신청한 편의점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씨유'(CU)를 운영 중인 BGF리테일은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14일부터 심야영업 중단 신청을 받

은 결과,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두 4개점이 조정을 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GS25'의 사업주인 GS리테일에도 24개 점포가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뿐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세븐일레븐은 오는 19일부터 영업 중단 신청을 받는다. 광주·전남 지역 편의점 중에는 18일 현재까지 영업 중단을 신청한 편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신청한 점

포도 '최근 6개월간 심야 영업에서 적자 발생'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달 말까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신청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심야영업 중단 허용과 관련된 일부 가맹점주의 동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아직 공식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영업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류다.

광주시 서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편의점 업체가 24시간 영업인데다 주요 상권에 위치해 있어 잠시라도 중단 신청을 받는다. 광주·전남 지역 편의점 중에는 18일 현재까지 영업 중단을 신청한 편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신청한 점

기를 전했다.

이와관련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전편협)는 새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확한 공지와 적극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편협은 "가맹사업법 통과 이후에도 상당수 가맹본부가 심야영업 단축에 대해 정확한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편의점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심야영업 단축에 대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신속히 공개할 것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심야영업을 강제화하고 있는 가맹계약서

를 전면 수정 또는 삭제할 것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단축 요구에 불이익 조건 제시로 강제하지 말고 즉각 검토 허용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맹본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할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14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의 의무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로 전체적으로는 편의점을 포함해 총 406개 브랜드, 점포수는 3311개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의 24시간 강제 영업을 금지했으며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에는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1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시니어클럽 교육장에서 하남농협 조합원 한마당 축제와 함께 보담대회가 열렸다. <광주 하남농협 제공>

## 하남농협, 수익금 15억 출자배당

### 조합원 보담대회 성료

광주 하남농협(조합장 박종면)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보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시니어클럽 교육장에서 나흘 동안 진행된 이번 보담대회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농협사업의 현황을 보고하고, 지난해 창출한 14억5000만원의 수익에 대한 이용과 배당과 출자배당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친절봉사과 인화단결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하남농협 창립 이래 처음으로 받은 총화상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됐다.

박종면 조합장은 "조합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선도금융기관으로 도약해야한다"며 "경영 전반에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남농협은 지난해 광산구 수완지구에 신안지점을 신규 오픈해 4개월 만에 수신 57억원과 대출 22억원을 달성했으며 흑석동 2200㎡의 수익에 대한 이용과 배당과 출자배당을 지급했다.

한편 하남농협은 2010년부터 올해로 4년째 지역별보 조합원을 초청 보담대회와 함께 한마당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제조원가 분석' 과정 개설

### 중진공 호남연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이 26일부터 사흘 동안 '제조원가 분석 및 관리' 과정을 개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인의 원가 분석 및 관리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원가의 기본요소 이해, 목표이익 관리 등 기초이론부터 직접적인 원가계산서 작성 실습까지 폭넓게 다뤄지며 제조현장 관리자 또는 원가 관련 담당자 및 초심자에게 적합한 연수과정이다.

연수비는 인당 33만원이지만 50인 미만 소기업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의(062-250-3021).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셀프제작 목공교실' 운영

### 광주·전남 중기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18일 '셀프(Self) 제작터'를 이용한 제1회 셀프제작 목공교실을 3월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셀프제작 교실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공간과 장비가 없었던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활가구제작에 관심 있는 개인, 가족단위, 동호회 회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엔 운영되는 목재생활가구제작 과정은 재료비 15만원에 부담하면, 목공제작과 관련한 기술을 익히고 취득할 수 있다. 문의(062-360-9154).

/임동률기자 exian@



## '닭·오리고기 더 먹기' 시식회

18일 고향주부모임전남도지회(회장 강남희) 회원들이 농협전남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닭고기·오리고기 한 마리 더 먹기'시식회에서 오리고기 요리를 시식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와 함께 양파, 대파 소비촉진을 위한 식문화교육도 열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 찍고... 바르고... '화장하는 남자' 바빠졌다

### 광주신세계 남성화장품 매출 17% 신장

기온이 상승하고 화장하는 남자가 많아지면서 화장품 매출을 찾는 남성이 급격히 증가, 관련 상품의 매출이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남성 화장품의 품목도 더욱 다양해졌다. 본격적으로 남성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던 지난 2012년에는 '남성

용 선크림'이나 '남성용 BB크림' 같은 남성용 색조화장품 중심의 품목들이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피부관리 전 반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남성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토너'와 '로션'에서부터 '수분크림'에 이르기까지 '남성용 기초화장품'의 매출이 '남성용 색조화장품'의 매출을 앞지르기 시

작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에는 '남성용 기초화장품'이 남성 화장품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오는 23일까지 백화점 2층 화장품 매장에서 '코스메틱 페어'를 진행한다. 코스메틱 페어에서는 기존 화장품 행사보다 남성 화장품의 비중을 20%가량 확대하는 한편, 남성 소비자들을 위한 40여종 이상의 '맞춤형 남성화장품 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일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 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상환 연장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 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금리 부담도 낮아진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조건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기존 1년거치 2년상환 4.5%이던 것이 1년거치 2년상환 시 4%, 1년거치 4년상환 시 4.2%로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거치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금 지원규모를 출연금의 15배에서 출연금의 12배로 축소하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영세 음식점의 어려움을 반영해 축산 관련 서비스업, 도축업 중 가금류 도축업

등 지원업종을 6개 확대해 총 54개 업종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무담보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에서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실시하고, 대출후 1년 동안 시비로 2.5%의 이자보전을 지원해 지난 13일 기준 1만496건 1014억원이 지원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대구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벤치마킹해 현재 시행중이며,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 주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안전행정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상하며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드뽕뽕>의 이호영 대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